

6급 이해 듣기 대본

※ [1~4]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1. 남자 :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지난번에 그렇게 크게 당하고도 진영 씨랑 또다시 일을 해요? 이번에도 배신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자 : 지난번 일은 실수였을 거예요. 그 친구는 절대 저를 실망시키거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남자 : _____

2. 여자 : 차 좀 봐 주세요. 지방에 내려왔다 오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더니 서 버렸어요.
남자 : 어디 한번 보죠. (잠깐 휴지) 소리도 이상한데요?
여자 : 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차가 잠깐 떨긴 했는데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자 : _____

3. 여자 : 사소한 거라도 뭔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자 : 글썽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 참, 제 옆을 스쳐 지나갈 때 본 건데 범인이 입은 점퍼에 ‘한국 건설’이라고 써 있었어요.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자 : _____

4. 여자 : 박사님,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실업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남자 : 사실 우리 경제는 그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경제가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하는데 말이죠.
여자 :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남자 : _____

※ [5~7] 다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5.

남자 : 입양이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여자 : 물론 위탁 시설에서 처음 아이를 데리고 올 때에는 갈등도 많았죠. 내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키울 거냐고. 친정 어머니의 반대와 남편의 걱정, 그리고 다섯 살짜리 막내아들의 투정까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 모두 아이를 친손자, 친아들,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아이를 통해 오히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요.
--

6.

남자 : (슬픈 어조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 조문객들의 놀란 얼굴 속에 이 교수의 얼굴도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지경입니다. 이 교수는 생전에 무려 100여 권의 저서를 출간할 정도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동료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이 교수님, 이 세상 일은 이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부디 편하게 눈을 감으소서.
--

7.

여자(월매) : 말씀은 황송하오나, 도련님의 그 말씀은 잠시 잠깐 희롱하는 말씀이니 백년가약 당치 않은 생각이요. 우리 딸의 깊은 마음 이 어미 말고 누가 알리. 옥 같이 길러낸 내 딸을 도련님이 욕심 부려 인연을 맺었다가 나비가 꽃 본 듯이 한 번 보고 버리시면 어찌하오. 금쪽 같은 내 딸, 한평생을 독수공방 눈물로 지낼 터이니. 내 딸 신세 어찌 되겠소? 그러니 혼인 얘기 다시 마시고 잠시 노시다 가시오.
--

※ [8~11]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4점)

8. 남자는 논문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여자 : 이상으로 한국어 문법 교육에 관한 박진희 선생님의 논문 발표를 마치고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지) 네, 말씀해 주시지요.

남자 :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다양하고 많은 실제 자료를 수집한 점이 높이 평가됩니다. 그리고 발표 말미에 말씀하셨듯이 한국어 문법 교육 영역의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객관적인 통계 제시나 실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9. 이 대화에서 언급한 종교의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 : 정리해 보면 종교는 개인을 좌절, 불안,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고통스런 삶에 활기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번엔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자 : 우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다는 긍정적인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종교의 보수성과 절대성으로 인해 종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사람들의 화합이 깨지게 되는 부정적인 기능도 있지요. 그러나 타 종교를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가 발휘된다면 부정적인 기능은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10. 방송 진행자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십시오.

여자 : 최근 한 방송 진행자가 인기를 끌면서 그의 이야기를 묶어 책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말씀씨가 좋은 건가요?

남자 : 단순히 말하는 기술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선 내용이 아주 기발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게 하지요. 그러나 진짜 인기의 비결은, 내용의 기발함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짧게라도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웃음 속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한다고나 할까요.

11. 남자가 지방 분권화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쓰십시오.

남자 : 저는 지방 분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 간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하는 주장이 있는데 지방 분권화가 처음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12~13] 다음 그림을 보고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십시오. (각 4점)

12.

<대본>

- ① 가(남) : 새로 영업부로 왔으니 모두에게 인사 한마디 하시죠.
나(여) :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② 가(남) : 기업 경영을 그 따위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여) : 듣기 싫습니다. 기업 윤리고 뭐고 난 모릅니다.
- ③ 가(남) : 내일부터 여기에 올린 기획안대로 진행하시죠.
나(여) : 네, 곧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가(남) : 최고 경영자로서 바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여) : 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13.

<대본>

- ① 가(남) : 정말로 음악에 흠뻑 빠져서 연주를 하네요.
나(여) : 그래서 그런지 더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 ② 가(남) : 박자가 너무 빠르잖아. 제대로 좀 해 봐.
나(여) : 죄송해요. 다시 한번 쳐 볼게요.
- ③ 가(남) : 정말로 화음이 아름답네요.
나(여) :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하죠.
- ④ 가(남) : 이번에는 어떤 곡을 불러 주시겠습니까?
나(여) : 청취자들이 신청하신 곡 중에서 하나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 [14~16] 여자의 말을 듣고 나서 남자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4점)

14. 남자 : 등산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자 : 등산은 장시간 경사가 있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따라서 옳은 방법으로 걷지 않으면 쉽게 지쳐 버리게 되지요. 가끔 보면 황새 걸음으로 보폭을 크게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숨에 올라가는 듯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가다 쉬고 가다 쉬는 게 됩니다. 이러면 리듬이 깨지고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서 금방 지치죠. 등산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여분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보폭을 작게 해서 평지보다 느린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15. 여자 : 오늘은 좋은 사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떡을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합니다. 혹자는 다른 사람을 무조건 따라잡기 위해 무리를 하게 되기도 하지요. 이러한 경우가 사업에 적용이 되면 그대로 망하기 십상입니다. 결국 그건 남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여러분이 가진 떡을 냉정한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 떡부터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16. 여자 :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드시고요. 식사를 거르는 것도 안 되지만, 중간에 간식을 드시는 것도 피해야 돼요.
 남자 : 네, 선생님. 달리 주의할 점은 뭐가 있나요?
 여자 : 설탕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이나 튀긴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음식도 볶음이나 구이, 찜을 해서 드세요. 육류를 기피할 필요는 없어요. 단, 기름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비계나 껍질은 제거하고 드시도록 하세요.

※ [17~19] 다음 뉴스를 듣고 알맞은 제목을 고르십시오. (각 4점)

17. 남자 : 은행에 침입한 강도가 직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6일 오전 9시 35분께 대전시의 한 은행 지점에 이 모 씨가 들어와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순간, 직원들이 합세해 강도를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범인이 휘두른 칼에 손바닥을 다쳤으나 은행 고객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CBC뉴스 이건호입니다.

18. 남자 : 15년 간 아흔 여덟 차례의 헌혈을 통해 생명 나눔에 앞장서 온 66세의 최상준 할아버지가 최고령 헌혈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하게 된 헌혈이었지만, 피가 모자라 환자들의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정기적으로 헌혈의 집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헌혈에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모아온 헌혈 증서를 기증했습니다. UCN 뉴스 최상진입니다.

19. 여자 : 반전과 인권 운동에 앞장서 온 여성 단체들이 오는 9일 오후 7시 여성 회관 건물 앞 광장에서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행사를 엽니다. ‘여성 평화의 날’로 명명된 이 행사는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토의하며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행사 책임자인 김미호 씨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 등 힘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평화라는 기본 원칙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UB뉴스 유지숙입니다.

※ [20~21] 다음 토론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 : 경찰관은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외모를 꾸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찰 내부에서도 가벼운 염색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염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색으로 지나치게 염색하는 것은 삼가자는 것이지요. 다른 건 몰라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은 국민에게 단정한 느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 최근에는 경찰의 일도 다양화되어 업무 특성에 맞게 복장을 자유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염색하는 다양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머리를 자유롭게 하면 분위기도 덜 경직되고 시민들에게도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15자 내외로 쓰십시오. (3점)

21. 여자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 중 두 가지를 쓰십시오. (4점)

※ [22~23] 다음 연설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4점)

남자 :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제때 긁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 박진석은 바로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일꾼으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휴지) 여러분이 그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당선이 된다면, 무엇보다 먼저 교통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장기적인 해결 방법으로 지하철역을 건설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먼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용지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출퇴근이 불편한 지역은 버스 노선을 연장, 또는 증설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24 ~ 25]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4점)

남자 :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문고는 1402년 조선 시대에 생긴 것으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설치했던 북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문고 제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자 :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북이 울리는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북을 친 사람의 억울한 사연을 담당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했지요.

남자 :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여자 :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나랏일과 관련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중대한 범죄, 그리고 누명을 써서 억울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남자 :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이용을 했나요?

여자 :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일반 상인이나, 노비, 또 지방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고, 실제로는 주로 서울의 관리들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했던 그 의미만큼은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제도였다고 봅니다.

24. 이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25.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 [26~27]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4점)

여자(학생) : 교수님, 초기 인류가 이룩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교수)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불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기술적 변혁을 이룬 것은 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불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인류의 생활과 기술이 급격히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자 : 그렇다면 불의 사용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자 : 무엇보다 먼저, 공동체 사회 형성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을 중심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원시 공동 사회의 형성이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다음으로 다양한 음식 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식물물을 익혀 먹음으로써 인류는 역사상 최초로 다양한 음식의 맛을 즐기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해가 되는 성분은 없애줌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 교수가 불의 발견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십시오.

27. 이 대화를 듣고 불의 사용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 두 가지를 쓰십시오.